



가천대학교

국내 최초 반도체 대학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하와이 캠퍼스

스타트업칼리지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연구중심병원

국내 최초 닥터헬기

국내 최초 중성자 암치료기

사립대 최초 국가지정 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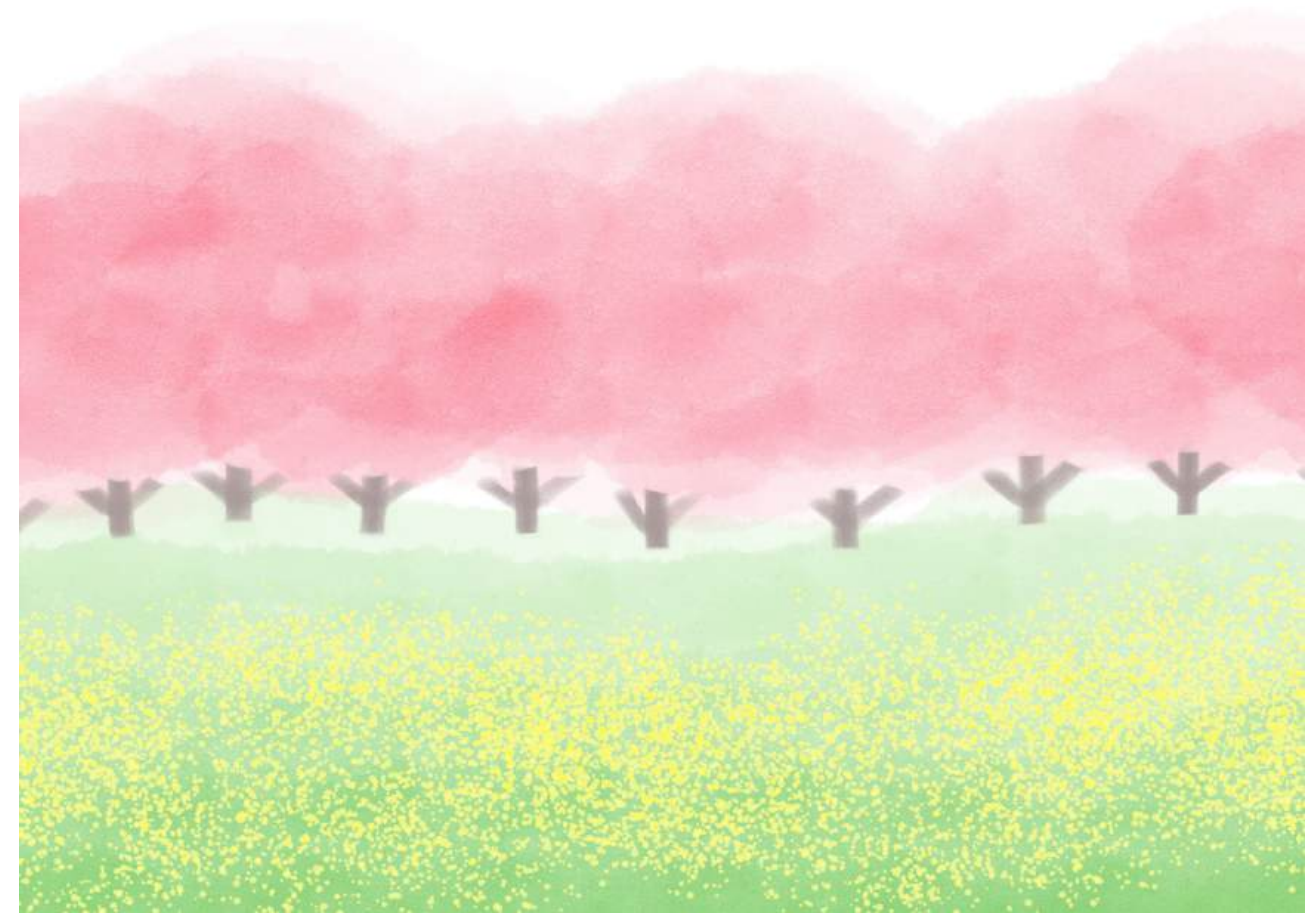
경인 최초 CAR-T 암치료센터



본지 161호 (사)한국차문화협회



교육분야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강화캠퍼스,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신명여자고등학교, 가천인력개발원 의료분야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연구분야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BRC(Bio Research Complex), 가천브레인밸리 사회·문화분야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가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 봉사분야 가천청소년봉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가천누리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6 Vol. 161

봄

茶文化



차가 주는 행복, 꽃밭에 앉은 듯 황홀하여라

차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묻는다면 대개는 ‘봄’이라고 답한다. 첫잎을 처음 따는 것뿐만 아니라 첫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곡우(穀雨)를 소재로 차시를 많이 남겼다. 그중에서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의 ‘우전차’는 봄과 함께 회자하는 대표적인 시이다. 이호민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차시와 그림을 다수 남겼다. 본관은 연안, 자는 효인, 호는 오봉, 남곡, 수와이다. 임진왜란 당시 왕을 호종한 공으로 1604년에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연릉군에 봉해졌다. 그의 차시 ‘우연히 읊음’(偶吟) 을 살펴보자.

오래 누워 있으니 새가 창문을 엿보고/ 차 끓이니 사발에서 생황 소리 올리네
과일나무에 한바탕 비가 내리니/ 놀라 일어나 앉아 머리를 긁적이네

차를 달이는 소리가 생황(한국의 관악기) 소리 같다고 표현했다. 대개는 차 달이는 소리를 술바람 소리나 뗏잎 소리, 비 오는 소리, 게 눈 끓는 소리로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의 다른 시에는 더욱 선명하게 생황 소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곡우 전에 새로 싹 트는 첫잎은 / 첫 잠 잔 누에를 채취하는 듯
구리 댕돌로 가니 구름처럼 기름기가 흐르고 / 항아리에 담자 여린 잎이 좁쌀처럼 선명하네
동자가 느긋이 달이니 냄비에서 생황 우는 듯 / 늙은이가 줄다가 깨니 목구멍에 불이 이는 듯
한 사발 가져오게 하여 마시고는 시를 지으니 / 땀구멍마다 봄이 넘쳐 꽃밭에 앉은 듯 향긋해

차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상황이다. 소소한 차의 즐거움을 이렇게 담백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한해를 지내고 봄에 새로 나온 첫잎을 유념하여 따는 다음, 그것으로 첫 차를 만들어 마시며 그 자체로 마음에 고유한 바람이 일고, 다 마신 다음에는 모든 땀방울이 열리듯 온몸이 개운함을 단순하게 그려냈다. 단순하지만 이 속에는 화자의 현재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 새로 나온 차 한 잔의 행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시도 드물다. ☺

[표지 이야기]

2026년 병오년 봄은 말의 해가 힘차게 솟았습니다. 말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힘찬 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협회도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은 어디를 보나 아름다운 꽃이 필니다. 우리 차문화에도 활짝 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이호민(李好閔 1553~1634)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유산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6 Vol. 161 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친구 세대의 협력과 조화로 차문화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006 명예이사장 신년 메시지 | 차 한잔의 '온고지신(溫故知新)' 겨레 얼 떨치리
- 008 특집 1 | 2026년 신년하례식 개최
- 020 특집 2 | 2026년 동계연수회 및 정기총회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50 협회 포커스 | 인설故 이귀례 11주기 추모제
- 054 지부장 칼럼 |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사람(1)
- 058 스페셜 논단 | 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 발전 방향
- 064 건강한 삶 |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폐렴
- 066 차세대 차인(茶人)을 찾아서
- 068 회원 글밭 | 차(茶), 차(茶), 차(茶)
- 080 협회 소식 | 신년 교육위원회 개최 외

茶情茶感 • 첫잎이 맺어준 인연

- 090 지부사랑방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 109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113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우수료 명단



신구 세대의 협력과 조화로 차문화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되었습니다. 60년 중 한 번 돌아오는 병오년의 병(丙)은 ‘불’에 해당하니 붉은색이요, 오(午)는 말이니 방위로는 정남, 시간으로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에 해당하며 이 또한 ‘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60년 중 천간으로는 가장 열정이 넘치고 역동적인 해가 병오년입니다. 붉은 말과 같이 도약하고 전진하여 원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한국 차문화도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올해로 설립 35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고 차인과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한국 차문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차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 우리 협회는 한국 차문화의 산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가 한국 차문화를 발전시키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계승하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여씨춘추(呂氏春秋)>의 계춘(季春)-진수(盡數) 편에는 “유수불부 호추불두 동야(流水不腐, 戶樞不蠹, 動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리는 쉼이 슬지 않는다.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내일이 오늘과 다를 바 없는 정체된 문화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문화는 공유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흘러야 합니다. 문화는 축적되는 것으로 윗세대의 경험적인 지식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쌓여 발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여 혁신을 추구하므로 문화는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간의 결이 모여 오늘이라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 것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여 지혜롭게 변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구(新舊) 세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문화의 다음 세대를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한국의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세계인이 한국의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한복, 갓, 금박, 보자기, 다식(茶食) 같은 한국 문화의 세부적인 요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은 가장 한국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국의 차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함께 노력합시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다음 세대에 차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의 젊은 차인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전통의 재현에 더하여 젊은 차인들의 새로운 감각을 흡수하고 움직여 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지부와 함께 성장, 발전하면서 한국 차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모든 차인 여러분, 세계인 앞에서 한국 차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차인(茶人)으로서의 비상을 가슴에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차 한잔의 ‘온고지신(溫故知新)’ 겨레 얼 떨치리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대지를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말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찻잔 속의 정적(靜的)인 안온함이 조화를 이루어, 전국의 차인(茶人)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읽었고, 차를 마시며 삶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차(茶)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탱해 온 유구한 유산입니다. 봄에는 생명의 기운을, 여름에는 활기찬 에너지를 담아내며, 가을과 겨울에는 깊은 침잠(沈潛)과 인내의 정서를 찻잔 속에 가라앉혔습니다.

제가 차문화 보급에 마음을 쏟아온 것은 차가 지닌 ‘정신적 힘’을 깊이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차문화 연구와 계승에 헌신하신 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과 뜻을 함께하며, 우리 고유의 차문화를 되살리고 가꾸는 일에 동행해 왔습니다.

1970년대,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에는 어떤 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송농’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안타까운 일화를 접했을 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차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는 신념 아래, 연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국산 차 애용’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행진에 나섰던 뜨거운 기억 역시, 그 뜻을 함께 나눈 시간의 한 장면으로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는 약리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성분은 현대인의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에 맑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중독성 없이 정신을 맑게 하는 차는 우리 선인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입니다. 저는 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전통차를 대접해 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차의 효능을 확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문화가 강조될수록, 우리 고유의 특수성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옛것을 우려내어 새것을 창조하는 ‘온고지신(溫古知新)’의 정신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코리아 문화의 경쟁력입니다. 커피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차문화에 담긴 효(孝), 예(禮), 지(智), 인(仁)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면, 그것은 곧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정수(精髓)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투명하고 넓은 찻잔 속에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성찰로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무아의 경지에서 타인을 포용하는 것, 그것이 다도의 길이라 믿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우리 차문화가 세계인의 가슴 속에 고귀한 향기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차 한 잔, 한 잔이 건강과 평안을 지키는 묘약이 되고, 그윽한 다향(茶香)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26년 새봄을 맞으며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해
힘찬 도약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2026년, '불(火)의 기운을 가진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우리 협회는 병오년을 맞이하여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이룸웨딩컨벤션 4층 사랑채'에서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했다.



2026. 01. 06.

이사장님께 헌화 및 선물 증정과 세배로 새해를 열다



2026. 01. 06.



진다의례를 주관하고 있는 박광옥 부회장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협회는 지난 1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김가영, 차영민, 강정자, 강순란, 이림,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과 김미숙 강원지부장, 교토지부 조화미,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서울제2지부 박광옥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장, 이림 전북지부장, 조정미 부산지부장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지부장, 임원,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202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병오년을 맞이하여 협회 회원들은 협회의 발전 방향과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 교환과 덕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가 된 서난경 전남지부장과 변명선 서울제1지부 이사장의 축하자리가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서울제1지부를 이끌어 왔던

이기분 지부장과 후임 지부장이 된 최진숙 지부장의 이임식이 함께 진행되어 축하와 함께 격려의 자리가 되었다.

민달래 팀장의 사회로 1시간 동안 진행된 신년하례식은 국민의례,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선배 차인에 대한 묵념, 진다의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다의례는 박광옥 협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진행되었다. 진다의례에는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이 이사장님께 헌화를 시작으로, 최진숙 서울제1지부 신임 지부장의 과일 증정, 서난경과 변명선 신임 이수자의 선물 증정, 이림 전북지부 지부장(부회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의 선물증정식이 있었다. 이어서 이막동 이사의 헌다가 진행되었고, 신임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가 된 서난경, 변명선 이수자의 '이사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2026. 01. 06.



2026. 01. 06.



2026. 01. 06.



2026. 01. 06.



2026. 01. 06.

이 낭독되었다.

서난경, 변명선 신임 이수자는 편지글에서 “평소 이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전통의 전승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우러러보며 저희 또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본받아 일선 교육현장과 차문화협회 교육생들에게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익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방다례 정신과 선배님들의 노고까지 깊이 헤아리는 차인으로 거듭나게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 사장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사장님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이제 맺은 차 씨가 새로운 밀알이 되어 거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니 이수자라는 무게와 책임감이 더욱 귀하고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하여 이사장님께서 일궈오신 이 길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낭독했다.

이어 서울제1지부를 이끌어 왔던 이기분 전임 지부장이 이사장님께 ‘등불-꽃보다도 예쁜 꽃이다’를 헌정했고, 협회 임원과 이수자 일동은 이사장님께 새해 인사를 올리고, 뒤이어 회원들이 함께 세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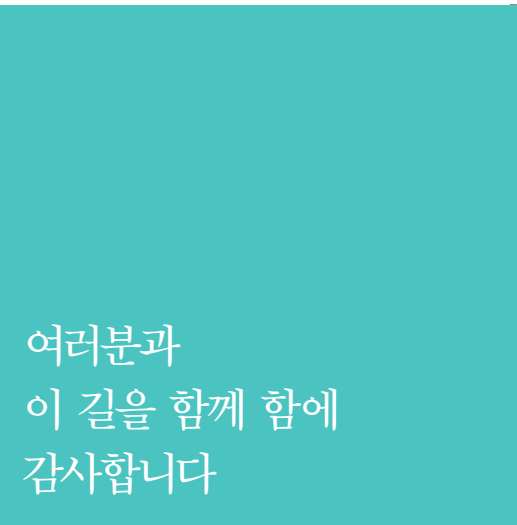
2026. 01. 06.



2026. 01. 06.



2026. 01. 06.



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함에
감사합니다



2026. 01. 06.



2026. 01. 06.



2026. 01. 06.

신년하례식의 작은 이벤트로 임원들의 새해 소망 이벤트가 있었다. 차나무에 작은 소망을 적으면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시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회원이 차나무에 소원성취 글귀를 써서 붙인 후 선물증정식을 했다. 광주지부의 박삼숙 이사가 첫 선물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어서 박경숙, 심순옥, 노영숙, 서난경, 조화미 지부장이 당첨되어 선물을 받았다.

신년 떡 가름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강정자, 강순란, 이림, 박숙희, 박광옥 부회장이 함께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몇 번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걸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10여 년 전, 저는 협회와 그리고 오늘 이 자

리에 함께해 주신 차인 여러분과 더불어 차인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즐기던 골프를 비롯한 여러 취미를 내려놓고, 오직 차문화 발전이라는 외길에 제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 차문화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와 저를 믿고 변함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늘 감사함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건내주신 사랑과 응원, 다시 일어설 힘, 그리고 도전을 가능하게 한 용기와 내 옆클로버 같은 행운을 주신 여러분이 체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저를, 그리고 이 자리를 만



이사장님 인사말



신임 변명선, 서난경 이수자가 이사장님께 편지글을 낭독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떡 가름 떡으로 한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이림 부회장의 새해 건배사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고 다짐을 했다. 이어서 강정자 부회장과 교토지부의 조화미 지부장이 함께 건배사를 해 주었다. 특히 조화미 지부장은 협회의 교토지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회의 지원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점심은 뷔페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신년하례식을 마쳤다.



신년 정기이사회 개최



2026. 01. 06.



2026. 01. 06.

신년하례식을 마친 후 2026년 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이사회는 민달래 팀장의 진행으로 개최, 성원 보고, 이사장님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전 상정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했다. 민달래 팀장은 성원이 되었음을 알렸고, 이사장은 상정된 안전에 대해 보고와 토의를 주관했다. 총 8안이 상정되었고, 이 가운데 2025년 최우수지부 선정 건과 제66회 동계연수회 계획건, 신임이사 추천 건 등이 집중하여 토의했다. 2025년 전국 최우수지부 선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통계를 통해 선정되었다. 그 결과 합계 160점을 획득한 인천지부가 1위, 152점을 획득한 서울제1지부가 2위, 144점을 획득한 전남지부가 3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지부는 동계연수회에서 찾자리 봉사 등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2026년 제66회 동계연수회는 그동안 화성

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진행하였으나, 푸르미르 호텔의 사정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천안은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에서 모이는데 좀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동계연수회 접수는 서울제1지부가 맡기로 했고,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인천지부가 찾자리, 안내 및 시상은 서울제2지부가 봉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연수회 강사는 한국학대학원의 주영하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최수정 교수가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6년 임원 '교토' 해외 연수 및 교토지부 10주년 기념식 방문 등에 대해 토의했다. 협회 발전을 위한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2026년 1월 정기이사회를 마쳤다. 🍵



2026. 01. 06.



2026. 01. 06.



제66회 인성차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동계연수회 성료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
전국 27개 지부 참석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협회는 1월 6일 신년하례식을 시작으로 2026년도 공식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신년하례식에 이어 이번 동계연수회는 2026년 들어 협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2026. 02. 07.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빛나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 02. 07



개회사를 하고 있는 최소연 이사장

동계연수회를 위해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 전국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계연수회는 협회 설립 후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인성차예절지도사 수료식에 3만여 명의 사범을 배출한 협회는 올해로 제66회가 되었다. 제66회가 되는 동안 우리 협회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했다. 이번 동계연수회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더욱더 강화하고, 차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은 자리가 되었다.

2026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 재능교육연수원 창의관 대강당에서 제66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동계연수회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2월 7일 정오부터 회원 접수 및 입실이 완료되었다. 오후 1시 10분 최소연 이사장의 입장과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민달래 팀장의 진행으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은 하루 전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고, 서울제2지부와 인천지부 회원들도 하루 전에 도착하여 행사 진행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지휘하는 강정자 부회장



2026. 02. 07



날 협회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앞다퉀 뛰고 달려서 우리 차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드라마, 영화, 음악, 음식, 한복 등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젊은 차인들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우리 차문화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아야 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장점 이면에 소통 단절이라는 과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차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례 행사인 연수회, 차인큰잔치, 인설차문화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묵묵



회원들이 추위에 떨까 봐 최소연 이사장은 미리 무릎담요와 핫팩을 준비시켜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준비를 지시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강정자 협회 부회장의 지휘아래 애국가 제창, 최소연 이사장의 기념사, 협회가 제창 순으로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이날 최소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회가 동계·하계 연수회를 시작한 이래 어느덧 66회를 맞이하였고, 햇수로는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회장과 지부장을 비롯한 선배 임원들께서 차문화를 개척하고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오늘





히 닦아 놓은 길 위에서, 젊은 차인들이 주저하지 말고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빛나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선배가 묵묵히 닦아 놓은 길에서 이제는 젊은 차인들이 글로벌 문화를 이끌어 갔으면 한다는 인사말에 참석한 회원들은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도 봄의 씨앗이 숨어 있듯이 한국 차문화가 차인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말처럼 힘차게 뛸 것을 다짐하는 동계연수회 개막식을 시작했다.



특강1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주영하 교수



특강1에서 주영하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상차림과 식사 방법’에서 90분 가 열띤 강연을 해 주었다. 주영하 교수는 얼마 전에 출간한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란 책을 출간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저자이다.

주 교수는 한국인들은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를 입버릇처럼 많이 건네지만, 그것은 말뿐일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주영하 교수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의 실기, 문집 등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단서들을 잇대고, 중국과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사료를 비교하고, 근현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상의 면면을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다. 이뿐 아니라 상차림이이나 좌석 배치, 식기와 식탁 등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까지 활용해 한국인의 식사 방



2026. 02. 07.

특강2 사람이 벌레라니, 생명의 신비



2026. 02. 07.



2026. 02. 07.

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회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주 교수는 우리의 식문화 중에서 요즘 한국 음식에 관해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고맙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 음식 하면 '길거리 음식'으로 통용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다고 했다. 일본의 초밥처럼, 우리의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소개되고,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인간은 '함께 식사'하는 동물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로만 밥 한번 먹자고 하지 말고, 꼭 같이 밥을 먹으라는 권유로 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꼭 밥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것이므로, 차인들도 서로 식사를 공유하면서 즐겁게 차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했다.



이준호 교수



특강 2에서는 이준호 교수의 '사람이 벌레라니, 예쁜 꼬마선충으로 보는 생명의 신비'라는 도발적인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준호 교수는 1mm 크기의 작은 예쁜꼬마선충이 어떻게 인류 과학을 진보시켰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특강 2를 시작했다.

예쁜 꼬마선충은 인간과 유전자의 절반가량을 공유하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효시가 되었고, 세포 사멸, RNA 간섭 현상, 형광 단백질로 네 차례나 노벨상 연구의 주인공이 되어 과학사에 굵직한 획을 그었다.

한국 선충 연구의 개척자인 생물학자 이준호는 30년간 일군 예쁜 꼬마선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복잡한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가 1mm 벌레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유머를 섞어가며 열띤 강연을 해 주었다.



특강3 암 생존자 건강관리



이준호 교수는 인간에게 이익을 입증하기 전에도 호기심과 끈기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람은 벌레에서 출발했고, 인간에 대해 더욱 잘 알아내기 위해선 벌레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예쁜 꼬마선충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생물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주어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벌레라는 주제로 과학과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이 교수는 회원들에게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회원들의 시선을 집중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벌레라는 생명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강3 시간에는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최수정 교수의 '암 생존자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최수정 교수는 사적인 이야기로 특강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49세에 암으로 먼저 보냈고,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암 환자에 대한 애정과 암 생존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최 교수는 암 생존자가 전체 인구의 5.0%로 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14.5%에 이른다고 했다. 따라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3기일 경우 70.7%로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암 생존자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23년도 인천지역 암 발생 현황의 경우 남자 8,056명, 여자 7,648명으로 1위는 갑상샘암, 2위는 대장암, 3위는 폐암, 4위는 유방암, 5위는 위암 등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중에서 남자



최수정 교수



감사합니다



의 경우는 폐암이 1위 여자는 유방암이 1위로 나왔다고 했다.

암 생존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특별히 없다. 다만 골고루 먹고,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 어떤 영양제가 건강식에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최 교수는 영양제보다는 식품으로, 비타민 D나 B12, 칼슘 부족 시 보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밖에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운동은 유산소,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폭넓게 하고, 처음에는 저강도로 시작하여 서서히 강도를 늘리라고 조언했다. 특히 걷기가 가장 기본이 되고 집 안이나 집 주변을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쪼개서 5분에서 10분 걷기, 식사 후 중간중간, 커피 마시러 가는 길에 잠시 걷기, 제자리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스트레칭, 코어 근육 강화에 신경을 쓰면 암 환자의 삶이 훨씬 건강해진다고 했다.

특강 중간 최 교수는 회원들을 상대로 짙막한 퀴즈로 집중도를 높여,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특강으로 기억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이라고 하면 불치병이라고 의식되었다. 하지만 암 환자의 생존율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암과 현명하게 살아가는 시대로, 암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온 것을 잘 관리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인성차예절지도사 수료식 진행

준사범, 지도사범, 전문사범 수료를 통해
보다 많은 차인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

2026년 2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제66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준사범, 지도사범, 전문사범 자격증 수료식을 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최소연 이사장과 박광옥 심의위원이 함께했다. 윤성진 전북지부 전문사범의 선서로 시작된 수여식에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준사범) 44명,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21명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등에 자격증을 수여했다. 전문사범에게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규방다례 전수교육생증 등 5가지 자격패와 자격증을 수여했다. 끝으로 2026년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인천지부 최지원 지부장에게 최소연 이사장이 상패와 최우수 깃발, 상금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을 마쳤다.



협회 임원진



윤성진 전문사범 선서



준사범



지도사범 개근상



지도사범 화목상



지도사범



전문사범 개근상



전문사범 화목상



전문사범 공로상



전문사범 자격패 수여



2026년 인천지부 최우수지부 선정



최지원 인천지부장과 최소연 이사장



대학원 23기 전문사범 이사장님께 선물증정

“2026년 최우수 지부로 선정된 인천지부는 최지원 지부장의 지도 아래 준사범, 지도사범, 전문사범이 하나가 되어 인천지부 발전에 앞장섰다.”

박경숙 부회장 외 임원 등 임명장 수여식

협회 발전을 위해 부회장, 지부장, 이사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6년 2월 8일 연수회 2일째에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과 박광옥 부회장이 함께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그동안 협회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부회장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구경북제1지부 박경숙 지부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제1지부장을 이끌어 왔던 이기분 지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최진숙 이사가 서울제1지부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사에는 서울제2지부 송향숙, 정순영 전문사범과 인천지부 신은주, 원종혜 전문사범이 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가 된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과 변명선 서울제1지부 이사가 이수자증 수여식을 함께 했다.

이어서 협회와 각 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에게 봉사상과 공로상 시상식을 했다. 봉사상과 공로상 시상자들에게는 상장과 5인 다기 상품을 함께 줬다.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



최진숙 이사 서울제1지부장으로 임명



부회장 임명장



지부장 임명장



규방다례 이수증



부회장, 지부장, 이사 임명장 수여자들



지부별 기념 촬영

2026년 병오년에 열린 동계연수회는 일본교토지부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부에서 참석하여 새해 새출발을 다짐했다.

2026년 전반기 가장 큰 행사인 제66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동계연수회에는 교토지부를 비롯하여 전국지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새해 설 연휴와 겹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협회와 회원 간의 통로라 할 수 있는 동계연수회가 잘 마무리되었다.



강원지부



경남지부



광주지부



교토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부산지부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수원지부



아산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 1박 2일 동안 열린 동계연수회에는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지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 동계연수회는 특강과 내외 귀빈 다담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협회 임원 임명 등 다채로운 활동을 마감하며, 하계연수회를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제35회 정기총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제35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30부터 정오까지 충남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임원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총회에서 강희옥 감사는 회계감사에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수지결산서와 비품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회,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서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이사회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서류를 열람하고 기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음을 보고 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최소연 이사장은 민달래 팀장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회원들이 추인하는 방법으로 정기총회를 가졌다. 각 안건을 설명하고 회원들은 이에 의견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연 이사장은 88,620,000원을 협회에 기부했다고 민달래 팀장이 보고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정기총회를 주관하고 있는 최소연 이사장



강희옥 감사의 감사 보고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하는 민달래 팀장

(사)한국차문화협회 상반기 행사 일정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

회원 여러분께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일은 곧 우리 차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선도하는 뜻깊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협회의 모든 행사는 회원으로서의 소중한 책무이자, 협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협회 일정을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어, 가능한 한 많은 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협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입니다.

구분	날짜(요일)	장 소	비 고
제24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	3월 7일 (토)	인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3월 정기이사회 개최	3월 10일 (화)	서울 (사)한국차문화협회 교육장	
2026년 지도사범 교육 개강	3월 중	각 지부 교육장	73기
제4회 임원 차문화 해외 워크숍	4월 5~8일	일본 교토 및 오사카	협회 임원35명 참석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경연대회	5월 16일	인천 도호부관아	국내외 지부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덕차인 인설 故 이귀례 명예이사장 11주기 추모제

최소연 이사장과 최미리 총장 등 내외 귀빈 40여 명 참석
한국 차계의 거목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 추모



최소연 이사장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분당메모리얼파크 내 유명인 묘역에서 인설(仁設) 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 11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과 부회장단 및 각 지부장 등 협회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우리 차문화를 세계적 문화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생전 차인 양성과 차문화 보급에 헌신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차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생 차문화 발전에 매진한 그는 규방다례 초대 보유자로서 한국 차문화를 국내외에 알린 선구자였다. 그의 노력으로 한국차문화협회는 일본 교토



2026. 02. 26.

협회 부회장단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내외



협회 이사

지부를 포함해 국내외 27개 지부를 둔 차문화 단체로 성장했다.

또한 1970년대 초 전국 차문화 동호회 '인설회'를 창립해 한국 차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인천광역시 교육대상과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훈했으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지정과 신사임당 추대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인설차문화전과 전국 청소년차문화예절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소연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매년 명예이사장님을 찾아 추모해 주시는 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협회 이사



협회 이사



서울제1지부



인천지부



협회 회원

기뻐하실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의 차문화가 해외에서도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뜻을 이어받아 더욱 노력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박광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에는 1시간 동안 최소연 이사장의 헌다를 시작으로 최미리 부총장 내외, 협회 부회장단, 지부장, 이사, 회원, 직원까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추모제를 통해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 봄을 맞아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추모제를 마친 회원들은 명예이사장님께서 강조했던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를 시간을 가졌다.

한국 차문화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회원들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많은 회원들이 찬조로 뜻을 보탤다. 최소연 이사장 나라스케와 쑥떡,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은 예쁜 타월 세트, 부회장단은 참석자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2026. 02. 26.

이귀례 명예이사장 11주기 추모제 찬조

- 연규남 이사: 난 화분
- 서울제1지부: 꽃바구니
- 서울제1지부 이사 일동: 꽃바구니
- 서울제1지부 신연서 이사: 모듬전
- 인천지부: 과일바구니
- 인천지부 이막동 이수자님: 십만 원
- 인천지부 최성미 전수장학생: 굴
- 강원지부장 김미숙: 십만 원
- 신임 이수자(변명선, 서난경): 굴, 샤인머스켓
- 서울2지부 준비
 - 문차남 이수자: 십만 원
 - 류소영 이수자: 전병
 - 송향숙, 정순영 이사: 떡
 - 장효순 이사: 휘낭시
 - 허유진 전문사범: 기장떡

점심은 부회장단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장
황미경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사람(1)

지난 1월 말, 스리랑카로 차기행을 다녀왔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름, 실론(Ceylon). 지도 위의 한 섬나라가 아니라, 한 잔의 홍차 속에서 늘 불러 오던 그 이름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스리랑카에서 마시는 홍차는 언제나 맛있다.

이곳에서는 홍차가 자연스럽게 삶의 언어가 된다. 그 힘은 오리지널, 곧 원산지의 힘이다.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실론티의 얼굴

스리랑카 우바, 인도 다즐링, 중국 기문과 더불어 세계 3대 명차의 고향 스리랑카를 찾았다. 우바는 스리랑카 남동부 산악지대로 해발 2,000m 고지대이기에, 하이그로운 티의 특징인 상쾌하고 짙은맛과 미묘한 향, 밝은색의 차를 만날 수 있다.

건기가 끝나는 8월 초에서 9월까지 최상의 차가 나오는 켈리티 시즌이므로, 상쾌하면서도 우아한 장미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찻잎에 타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짙은맛보다는 오히려 감칠맛이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황금색의 골든 팁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골든링이라 불리는 코로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 코로나를 즐기기 위해 스트레이트 티로 즐기기도 하지만 레몬티, 아이스티, 밀크티에도 잘 어울린다. 주로 분쇄된 BOP 등급으로 가공되

며 분쇄되지 않은 OP 급으로 가공되는 홍차가 최고급이지만 생산량의 3%로 접하기 힘들다.

실론(Ceylon) 차는 재배 고도에 따라 이름과 향, 맛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스리랑카 중앙 고원지대를 따라 이어진 차밭은 단순한 농업 풍경이 아니라, 테루아가 살아 있는 차문화의 지도다. 섬 전체가 차의 지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과 안개, 바람과 토양이 찻잎의 성격을 결정한다. 스리랑카에는 많은 산지가 있으며 그 중 고지대(1,200 ~ 2,300m)의 누와라 엘리아, 우바, 덤블라와 중간지대(600 ~ 1,200m)의 캔디, 낮은 지대(600m)에 루후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우바(Uva)는 세계 3대 홍차로 꼽힌다. 해발 1,800m 남동부 고원지대에서 자라며, 멘톨 계열의 살로메틸 향, 이른바 '우바 플레이버'로 기억된다. 상쾌하면서도 차분한 목 넘김은 홍차 애호가들에게 각별하다.

누와라 엘리아(Nuwara Eliya)는 해발 1,800~2,000m, 큰 일교차 속에서 자란 찻잎은 섬세한 짙은맛과 유칼립투스·민트의 청량함을 품는다. '실론티의 샴페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스리랑카 섬 중앙에서 서쪽에 이르는 산악지대로 페드로(Pedro), 라부칼레(Labookalle), 브룩사이드, 하이포레스트 등의 대표 다원들이 있다. 해발 1,800m 이상 고지이기에 하이그로운의 질 좋은 차를 생산한다. 켈



리티 시즌은 덤블라지구와 같은 1~3월 사이며, 이 시기 차의 탕 색이 매우 밝기에 스트레이트 티로 마시면 좋은데 일본 녹차를 마시는 느낌이라는 사람도 있다. 같은 스리랑카 차인 우바나 덤블라에 비해 더 우아하고 가볍고 섬세하며 깔끔한 맛과 향기가 있다. 또한 인도 다즐링과 같이 고산지대 차 특유의 야생화 향취를 느낄 수 있다.

. 덤블라(Dimbula)는 색·향·맛의 균형이 뛰어난 정통 홍차 산지다. 특히 12월에서 2월 사이에 출하되는 덤블라는 ‘실론 차의 왕’이라 불리며 장미와 감귤류의 향을 전한다. 이 외에도 누와라 엘리아와 우바의 중간 성격을 지닌 우다푸셀라와(Udapselawa), 중저지대의 부드러운 홍차로 유명한 캔디(Kandy)까지, 실론티는 수많은 얼굴을 품고 있다.

캔디, 실론 홍차의 시작점

캔디는 싱할라 왕국의 마지막 수도이자, 스리랑카 홍차 역사의 출발점이다. 로열 보타니카든에는 1824년 중국에서 들여온 첫 차나무가 뿌리를 내렸고, 1867년 스코틀랜드 출신 제임스 테일러가 이곳에 농장을 조성하면서 실론티의 상업 재배와 수출이 시작되었다.

캔디 외곽 언덕에 자리한 실론티 뮤지엄(Ceylon Tea Museum)은 차 산업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1925년 지어진 옛 차 공장을 개조한 이곳에는 수동 롤링 머신, 보일러, 초기 티 패키지 등 차를 둘러싼 노동과 기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제임스 테일러와 토마스 립튼 경의 사진, 1944년 제작된 가장 오래된 티 패키지는 실론 홍차가 세계로 나아 간 흔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급 홍

차 브랜드의 뿌리가 이곳에 있다.

2층 테이스팅 룸에서는 다양한 등급의 실론 홍차를 직접 맛볼 수 있다. 붉은 탕 색 속에 스며든 청량한 향은 조금 전 보았던 역사와 자연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미니어처로 차잎을 옮기고, 말리고, 선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치가 있는데, 버튼을 올리니 움직이며 우리가 쉽게 마시는 한 잔 뒤에 놓인 수많은 손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

반다레웰라에서 데모다라로 향하는 기차는 시속 23km로 달린다. 스리랑카 여행자들이 기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초록 차밭과 싱그린 풍경 때문이다. 파란 기차가 녹색 언덕을 가르며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든다.

우바차 생산지인 데모다라의 차밭은 정원처럼 단정하고 그 한 그루 한 그루에는 여인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 이마에 자루 끈을 걸고 여린 차잎을 따는 모습은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실론 홍차의 또 다른 얼굴이다.

누와라 엘리아와 하푸탈레, 페드로 & 담바텐

소슬비가 내리던 날, 페드로(Pedro) 티 에스타테를 찾았다. 적당한 운무가 차밭의 정취를 더하니 차밭을 내려다보고 좋은 홍차를 무료로 주니 차는 그저 마시면 된다. 페드로 차맛은 누와라 엘리아의 푹푹하고 씹새름한 맛이 느껴진다. 차를 가공하는 공장과 차밭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다. 안개 낀 차밭에서 마신 홍차는 진하지 않지만, 향이 깊었다. 이곳에서는 차를 강매하지 않는다. 차의 본질은 경험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면상 2회로 게재합니다.

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 발전 방향

인천지부 이사 원종혜

01. 머리말

5월 21일은 국제 차의 날(International Tea Day)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2019년 6월 28일 제41차 회의에서 ‘국제 차의 날’ 지정을 결의했고, 그 해 12월 19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이 결의안은 채택되었다.¹⁾

국제 차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차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 차의 날 제정의 움직임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인도,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케냐와 같은 차 생산국 및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차 소비국에서 매년 12월 15일을 국제 차의 날로 준수하기로 했는데, 이는 1998년의 차 산업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시장에서 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여러 차 생산지 및 다원이 연쇄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소규모 차 재배자들은 헐값에 차잎을 거래했다.²⁾

따라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차 산업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차 노동자, 소규모 재배자 및 차 산업의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얹혀 있는 차 산업의 문제점을 각국 정부가 해결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과 2008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1)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9 December 2019, United Nations.
2) 인도 소규모 차 재배자 연합, Confederation of Indian Small Tea Growers Association, <https://web.archive.org/web/20151222120707/http://www.cista-india.net/ITDDetails.aspx?id=1>

기념행사를 거쳐 2015년 인도 정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차에 관한 정부 간 그룹(IGG on Tea: InterGovernmental Group on Tea)을 통해 국제 차의 날 기념을 확대할 것을 제의한 끝에 2019년 국제 차의 날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매년 5월 25일은 한국 차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유엔에서보다 훨씬 앞선 1981년 5월 25일 전국의 차인들이 진주에 모여 민족의 차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 차문화를 창조하려는 뜻으로 입춘에서 100일 즈음 햇차가 나오는 시기인 이 날을 차의 날로 제정하였고,³⁾ 2024년 44회를 맞았다. 이 날을 전후하여 전국의 차 관련 단체는 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며,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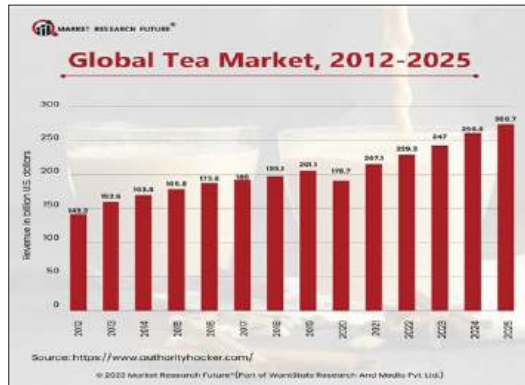
국제 차의 날과 한국 차의 날은 제정의 목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차문화의 확대와 발전 나아가 차 산업을 위한 것이며, 차문화의 확대와 발전은 차의 생산과 소비, 차 산업과 시장, 그리고 그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02.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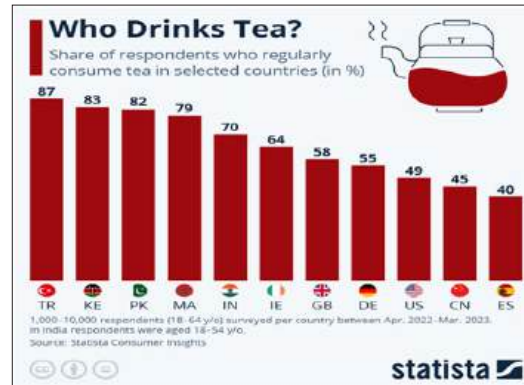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 식물(camellia sinensis plant)의 말린 잎을 뜨거운 물과 섞어 만든 음료로 중국 남서부, 인도 북동부, 미얀마 북부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5,000여년 전부터 중국에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차는 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이다.

세계 차 시장의 규모는 2022년 2,293억 달러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2,66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1) 차 시장은 연평균 6%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중요성과 전통, 건강과 웰빙 트렌드, 세계화 및 품종에 대한 접근성, 가치분 소득의 증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⁴⁾

3) 한국차인연합회, 차의 날 제정 선언문, http://www.teaunion.or.kr/bbs/board.php?bo_table=event_celebration&wr_id=14
4) 차시장 글로벌 보고서 2024,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https://www.thebusinessresearchcompany.com/report/tea-global-market-report>



〈그림 1〉 세계 차 시장 규모의 실제와 예측(2012-2025)
<https://www.marketresearchfuture.com/news/world-tea-market-reports-china-as-the-largest-exporter>



〈그림 2〉 국가별 차 소비자 비중
<https://blog.naver.com/jeunkim/223455554069>



〈그림 3〉 세계 차 시장 규모와 차 수출국가 지도
<https://blog.naver.com/jeunkim/223455554069>
<https://blog.naver.com/newheater/222516904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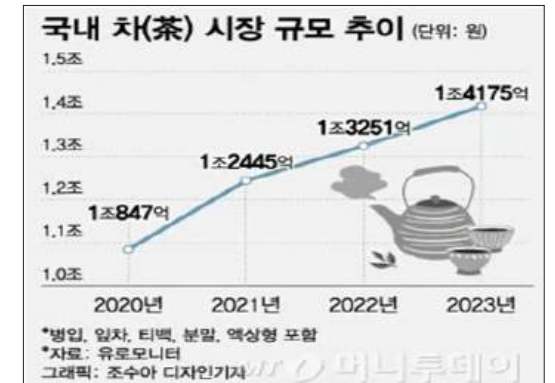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시는 국민은 튀르키예이다. 스태티스타(Statista)의 통계에 따르면 튀르키예인 10명 중 거의 9명이 일상적으로 차를 마신다고 답했다. 케냐도 83%가 일상적으로 차를 마신다고 답했으며, 파키스탄, 모로코, 인도, 아일랜드, 영국, 독일, 미국, 중국, 스페인 순으로 일상에서 차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그러나 스태티스타(Statista)의 통계에 따르면 차의 생산과 소비의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다. (그림 3) 중국은 2022년 1,450만 톤 이상의 차를 생산하고 이 중 일부를 수출했으며 이는 1,110억 달러로 2위 인도의 166억 달러보다 6배가 많다. 중국은 수출뿐만 아니라 가정 내 소비, 가정 외 소매 판매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차를 통한 매출만 2020년에 697억 유로(한화 97조 원)를 달성했을 정도이다.

국내 차 시장의 규모도 지난해 1조 4,175억 원 규모로 집계되면서 2020년 대비 3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⁵⁾ 물론 이것은 병입한 차음료와 잎차, 티백, 액상차(RTD: Ready-to Drink)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겨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의 영향으로 커피나 탄산 대신 차를 마시며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작은 사치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트렌드도 차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차를 즐기는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도 카페의 티 메뉴를 즐기거나 호텔의 애프터눈 티 또는 티 오마카세를 찾아가거나 다도 클래스에 찾아가는 등 다양하게 차를 즐기고 있다.⁶⁾ 이것은 체험형 콘텐츠를 즐기며 SNS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트렌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 오프라인 소매 판매점의 차류 매출액도 2021년 3,444억 원, 2022년 3,890억 원, 2023년 5,37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⁷⁾ 한국농수산물통공사(aT)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차류 생산량도 55만 톤을 넘어섰다.

국내 차 시장의 규모가 중국의 1/200에 불과하지만, 차의 생산량이나 수요의 증가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여러 식음료 업체에서 차 관련 신메뉴를 출시하고 티 하우스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거나 티 클래스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림 4〉 국내 차 시장 규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416521350573>

5) 머니투데이, 탄산 빠진 자리에 들어온 차(茶), 2024.2.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416521350573>

6) 한경 비즈니스, 차(茶) 시장, 커피만큼 커질까?, 2024.1.31.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1314870b>

7) 아시아 경제, 4만원 대 티 오마카세 '불티', 2024.4.10.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40915314670328>

램을 마련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2023년 10월 출시한 클래식 밀크티는 출시한 지 보름 만에 100만 잔이 팔리며 1초에 1잔씩 판매된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024년 1월 출시한 얼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도 출시 1주일 만에 20만 잔을 판매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의 차 음료 매출은 2023년 말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이디야 커피도 '이디야 블렌딩 티'라는 티 브랜드를 런칭했으며, 파riba게트로 대표되는 SPC 그룹도 2021년 프리미엄 티 브랜드 '티트라'를 런칭하여 2023년에는 ITI 국제식음료 품평회에서 '우수 미각상(superior taste award)'을 수상했다. 웅진식품은 블렌딩 티 브랜드 '티즐', 해태는 제로 칼로리-제로 슈가 홍차 음료 봉봉 아이스티, 동원 F&B는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 등 여러 식음료 업체들이 액상차(RTD) 제품들을 출시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차문화의 전통문화적 요소가 강하지만, 일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개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문화로 차를 마시며 인사를 나누는 문화와 함께 '떼 보톨(Teh Botol)'이라 하여 병에 담아 차를 판매하며 캐주얼하게 차를 소비하거나 설탕이나 열대작물을 곁들여 차를 즐기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차를 소비하고 있으므로⁸⁾ 식음료 업체들의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차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는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차 시장의 성장과 프리미엄 차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해외 유명 차 브랜드들이 국내에 티 하우스를 열고 있다. 그동안 해외 유명 차 브랜드들은 거의 백화점 식품 매장이거나 면세점을 통해서 국내 판매를 해왔지만, 2013년 12월 TWG가 강남 청담동에 티 살롱 국내 1호점을 열었고 현재는 서울에서 5개의 매장(안다즈 호텔, 성수,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월드타워점)을 운영하고 있다. TWG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19개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다. TWG는 2008년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회사로 2020년 기준 800여 종이 넘는 블렌딩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티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스테디셀러를 판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매년 50여 종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창업자인 타하 보쿠딕(Taha Bouqdib)은 모로코계 프랑스인으로 12세에 중국산 녹차를 마셔본 후, 대학을 중퇴하고 15

년 동안 프랑스의 차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시아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창업했다. TWG는 자신들을 티 브랜드가 아닌 럭셔리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성공했으며, TWG의 차는 싱가포르 방문자들이 즐겨 구입하는 대표 상품이 되었다.

2015년 다만 프레르(DAMMANN FRERES)도 광화문에 티 하우스 국내 1호점을 열었다. 다만 프레르에서는 정통 홍차를 비롯하여 가향 홍차, 백차, 우롱차, 흑자, 허브차 및 과일차 등 60여 종의 차를 판매한다. 1692년 프랑스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내에서 티 독점권을 포함한 특별한 신임을 받은 이후로 33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최초로 가향티(flavored teas)를 소개하며 고트 루쓰(Gout Russe Douchka), 자댕 블루(Jardin Bleu) 등 대표적인 블렌딩 티 브랜드를 개발하여 프랑스의 가향티 문화를 형성했다.

그 외에도 영국 왕실 차로 유명한 포트넘 앤 메이슨(FORTNUM & MASON)은 티 룸과 함께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후, 2017년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다시 매장을 열어 국내에서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 왕실에서 인정받은 200년 역사의 로너펠트, 러시아 왕실 차로 시작하여 현재는 프랑스 기업이 된 쿠스미 티 등 해외 티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국가	매장
포트넘 앤 메이슨	영국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로너펠트	독일	코엑스 티하우스, 선릉, 서대문, 광화문
쿠스미 티	프랑스	압구정
타바론	미국	청담 티라운지
위타드 티	영국	압구정
하니 앤 손스	미국	목동, 연희동, 용산, 천안
압끼빠산드	인도	부산 인도문화원 내 티부티크
스티븐 스미스 티	미국	압구정 기아차 전시관 내 티하우스

〈그림 4〉 국내 차 시장 규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416521350573>

스페셜 논단은 2회로 나눠 <여름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8) 재외동포청, 해외통신원 소식, 2024.6.14., https://www.korean.net/portal/global/pg_news_local.do?mode=view&articleNo=1001680319#/list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폐렴,

감기와 혼동될 수 있어 주의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정성환 교수

‘노인성 폐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쉽게 간과되기 쉬운 질환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층에서 폐렴은 경증 감기와 증상이 겹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가운데 하나다.

폐렴은 폐의 기관지 하단인 폐포(폐의 공기주머니) 조직에 생긴 염증이다. 감기와 폐렴은 기침, 가래, 오한과 같은 초기 증상은 비슷하다. 그러나 감기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해 1~2주 내 저절로 회복되지만, 폐렴은 증상이 길고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누르고 냄새나는 가래와 발열이 심하고 숨찬 증상이 특징이다. 폐렴이 생기면 폐포에 염증 물질이 생기고 이 때문에 산소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숨쉬기 어려워진다. 가래가 많이 생기고, 이를 제거하기 위

해 기침이 발생하고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전신 증상도 동반한다. 심하면 폐 전체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서 폐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고령층뿐 아니라 만성 질환자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폐렴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해야

폐렴의 원인으로는 폐렴구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녹농균 등 박테리아 감염과 인플루엔자(독감),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 리노바이러스(감기) 등 바이러스성 감염, 토양, 곰팡이 등에 접촉하면 유발할 수 있는 진균성 감염에 의한 감염 등을 들 수 있다.

폐렴구균은 코, 목, 입에 살고 있다가 침을 통해 폐로 내려가서 폐렴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노인성 폐렴의 가장 큰 특징은 면역력 저하와 기저질환의 결합이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당뇨병·심혈관질환·만성폐질환 등 다른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기처럼 시작된 기침과 미열이 곧 폐포 염증으로 이어지며, 염증이 폐조적으로 깊게 확산하기 쉽다. 고령 환자는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증상이 다른 만성질환과 섞여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초기부터 빠른 의료진의 판단과 적절한 검사가 중요하다.

폐렴 치료는 크게 예방,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65세 이상에서는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성인에서 백신이 중증 폐렴 및 관련 사망률을 크게 낮춘다는 근거도 있다.

폐렴이 의심되면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과 함께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폐렴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신속히 시작한다. 세균성 폐렴은 빠른 항생제 투여가 예후를 크게 개선한다.

개인위생과 유산소 운동을 하자

폐렴으로 진단이 되면 적절한 항생제 처방으로 치료하고,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항생제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균에 대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돕는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급성 폐렴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 폐렴 적정성 평가 기준을 보면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을 중요한 치료 기준으로 삼고 있다.

폐렴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침이다. 폐렴이 생기면 기관지 섬모 기능을 약화하는 분비물이 늘고 지속되면 이물질, 죽은 세포, 염증 세포 등이 섞여 누르고 끈끈하게 변하는데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침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폐가 호흡운동을 할 때 관계되는 호흡근이 약하면 기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호흡근을 강화할 수 있는 재활치료도 동반될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노인층, 면역저하자의 경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주변 청결 등 개인위생에 힘써야 하고 호흡근 강화를 위한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운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또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폐렴구균의 경우, 만성 질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적극적으로 맞을 것을 권한다. 📌

7년의 기다림, 찾자리의 주인으로 피어나다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김경자 이사의 지도로
중등부 3관왕에 오른
조수진 학생

찾잔 속에 어린 정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했던가.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의 김경자 이사(마운다미원 원장)는 지난 세월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차 문화를 전파하며 미래의 차인들을 길러내는 데 헌신해 왔다. 그 인고의 시간 중에서도 특히 2019년부터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1기 제자들'은 김 원장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어린 고사리손으로 다관을 잡았던 아이들은 어느덧 늙름한 중학생으로 성장하여, 이제 갓 차 생활을 시작한 2기 후배들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준 이가 바로 조수진 학생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직은 찾잔의 온기보다 호기심이 더 컸을 나이에 동생의 손을 잡고 마운다미원의 문을 두드렸



던 수진 양은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의 의젓한 숙녀가 되었다. 처음부터 수진 양의 몸짓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다례의 절차가 낯설어 동작이 서툴기도 했고, 정적인 예법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2019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출전했던 '전국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에서는 긴장한 탓에 평소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 큰 상을 거머쥐지는 못했다. 하지만 수진 양은 실망하며 멈추는 대신, 김경자 이사의 가르침을 믿고 다시 다석(茶席)에 앉았다. 김경자 이사는 늘 "예절이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습(習)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금해하지 않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은 수진 양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찻물을 올리고 다관을 비우는 무수한 반복 속에서 수진 양의 몸짓은 조금씩 유려해졌고, 내면의 깊이 또한 차향처럼 그윽해졌다. 그 묵묵한 노력은 마침내 눈부신 성과로 돌아왔다. 수진 양은 2025년 전국 학생차예절대회에서 중학생 부문 최우수상 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인설차문화전 차예

절경연대회'에서는 자매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동생은 초등부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을, 조수진 학생은 중등부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호남 지역 차문화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 현장에서 수진 양을 지켜본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 있는 자세와 차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기품이 느껴진다고 말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차와 자신을 마주하며 얻어낸 귀한 '시간의 결과물'이다. 수진 양은 꿈이 생겼다 한다. 고등학교에 가서 다도 교실을 열어 친구들에게 꼭 다례를 통해 올바른 몸과 올바른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차를 통하여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멋진 학창 시절을 위해 친구들에게 꼭 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참으로 대견스럽다.

한 잔의 차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듯, 7년의 세월을 견디며 진정한 차인으로 성장한 조수진 학생의 앞날에 더 깊은 차향이 가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

茶茶茶

회원 글발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발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녹차의 변신, 가루차의 유행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이용숙

요즘 유럽에서도 녹차의 한 종류인 가루차를 즐기는 '말차 붐'이 일어나 품귀 현상이라니 그동안 가루차가 귀한 줄도 모르고 마시다가 아껴 마셔야 할 지경이다. 그러니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평소에도 차인들을 만나면 즐겨 마시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가루차가 정신을 '쨍'하게 만들어 줘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된다.

가루차는 몸과 정신에 다 좋은데 찻잎을 통째로 갈아 마시는 차라서 일반 녹차보다 카테킨(EGCG) 섭취량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억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카페인과 L-테아닌이 함께 들어 있어 집중력은 올리고 긴장은 낮추어 주며 커피처럼 확 깨는 자극은 덜하고 서서히 오래가는 집중력이라 공부나 글쓰기, 명상하기 전 마시면 좋다고 한다.

몸의 순환과 혈당·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어 식후 가루차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 작용도 보고되어 요즘 '헬시 음료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음료로 특히 가루차의 녹색 향과 씹싸름함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다.

특히 차문화적으로는 차의 정신이 응축된 차로 단순함과 절제, 비움, 집중으로 요약되며, 선(禪)의 정신과 연결된다. 생활 속에서 집중은 필요할 때, 차를 가볍게 즐기고 싶을 때,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복잡한 절차 없이 차와 찻사발, 차선,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한 잔의 차가 되니 이 또한 좋은 점이다.

차의 정신의 마지막은 비움 속의 충만함이다. 뭉든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며, 선(禪)의 정신인 고요한 충만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가루차는 단순한 '유행의 차'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몸과 정신을 한 자리에 모으게 하는 소박하지만 깊은 수행의 차라 할 수 있다. ☯



차와 함께 배운 시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며



글_대구경북제1지부 전문사범 이진우

차를 처음 접한 건 이미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에 입학하고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처음 대접받은 차가 ‘자스민’이었다. 향긋한 내음과 함께 천천히 퍼져던 씹싸름한 맛은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날의 차가 유독 깊게 남은 이유는 맛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던 교수님의 진정성 있는 태도, 그 마음이 차 한 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차는 나에게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잇는 매개가 되었다. 그러나 차를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차를 좋아했지만 차의 역사와 문화,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인생의 어느 시기, 비움이 찾아왔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하던 순간, 새로운 채움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차였다.

한국차문화협회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제23기 대학원반은 그 인연을 삶의 방향으로 확장시켜 준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대학원 수업은 차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한국 전통예절과 차 문화 연구, 규방다례·생활다례·선비다례 수업을 통해 우리는 형식을 배웠지만 그 형식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다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절제가 담겨 있었고 차를 대하는 태도는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했다.

대구에서 인천과 서울, 광주로 이동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고 긴 이동 끝에 강의실에 앉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뒤에 찾아오는 배움의 기쁨은 오히려 더 깊었다. 이동의 수고는 배움의 깊이를 더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각지에서 모인 스무 명의 차인들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삶의 자리도, 차를 대하는 방식도 달랐지만 차 앞에 앉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호흡을 나누었다. 차가 주는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같은 길 위에서 잠시 동반자가 되었다는 기쁨은

“한국차문화협회 제23기 대학원반은 차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한 시간이 아니라 차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제다 실습과 차품평, 차음식 연구 수업은 차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 찻잎의 색과 향, 맛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과 집중 그리고 판단에 대한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차 한 잔을 우려내기까지의 시간은 서두르며 살아온 일상에 조용한 침표를 찍어주었다.

2026년 2월 7일과 8일, 동계연수회와 함께 열린 대학원 수료식은 이 모든 시간의 결실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따뜻한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마무리를 맞이했다. 수료를 앞두고 떠오른 생각은 베푼 익을수록 고개를 숙

인다는 말이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차와 사람을 대해야겠다는 다짐이 마음에 남았다.

한국차문화협회 제23기 대학원반은 차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한 시간이 아니라 차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차와 함께, 사람과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이 길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 배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또 하나의 삶의 방향이다. ☯



차 한잔이 주는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새기다

제66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및 동계연수회 소감

글_서울제1지부 준사범 김가연



이틀간의 동계연수회에 참여하며, 차문화와 예절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차를 배우고 마시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차문화에 임해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 첫날부터 진행된 여러 특강은 일상과 차문화를 연결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영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식사 속에도 배려와 질서 등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것이 차 한 잔을 내는 과정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이준호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작은 생명체도 저마다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차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더욱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이루어진 지부별 다담 시간에는 각 지부 회원들이 모여 차와 다식을 나누며 서로를 소개하고 수료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차

와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의 거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최수정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차를 마시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스스로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숭고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차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사람으로서 이번 에 얻은 가르침과 마음가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차 한 잔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찾사발에 스민 온도

글_서울제1지부 이사 신연서



종강식 날,
그녀가 손수 빚은 찾사발,
인상과 그림처럼 살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건네졌다.

1,250도의 불 속에서
늦은 밤,
바쁜 하루를 쪼개
손끝마다 정성을 담아 구워낸 시간.

찾사발의 온기를 느낄 때마다
물레를 돌린 사람의
차 향기와
마음이 스며
내 마음에도
그의 사랑이
가마의 불꽃처럼,
찾사발이 구워지는 뜨거운 온도로 전해진다. ☕

한 잔의 차가 익기까지, 나에게 마을이 되어준 시간들

글_서울제1지부 전문사범 홍길선



배움의 옥토(沃土)에서 보낸 3년의 기록

2023년 3월,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생이 된 첫날이 떠오릅니다. 차를 대하는 몸가짐부터 찻잔에 담긴 철학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던 제게 협회는 거대한 ‘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2년간의 교육생 과정을 거쳐 2025년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찻물을 올리는 선배님들의 단아한 손길에서 겸손을 배웠고, 계절마다 펼쳐지는 찻자리의 정취 속에서 삶을 대하는 여유를 배웠습니다.

마을이 되어준 선배님들께 드리는 헌사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찻잔처럼 온기를 나누어 주신 선배님들은 저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배움의 깊이를, 함께 걷는 도반(道伴)들과 앞서 길을 터주신 스승님들이 계셨기에 오롯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차는 혼자 마셔도 좋으나, 함께 나누면 그 향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모든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의 다짐: 맑은 향기를 더하는 차인으로

이제 저는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이 찻물을 끓이기 위해 술을 달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물에 맑은 차를 우려내어 협회와 지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첫째, 겸허한 자세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한국 차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선배님들께 받은 따뜻한 돌봄을 기억하며,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다정한 마을의 일원이 되어주겠습니다.

셋째, 우리 협회와 서울제1지부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 잔의 차가 완성되기까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듯, 저라는 차인이 익어가는 데 ‘마을’이 되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늘 맑고 향기로운 차의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❷

차는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글_전남지부 박화영



지난 1월 10일에 치러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자 3급 자격시험 대비과정은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차를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를 다시 바라보게 한 시간이었다. 처음 이 과정에 참여했을 때는 ‘자격시험’이라는 말이 주는 긴장감이 앞섰다. 용어 하나, 동작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정해진 순서와 형식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

차를 마시는 행위가 이렇게까지 세밀한 절차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차는 더 이상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다. 찻자리를 정돈하는 손끝의 움직임, 잔을 들고 내리는 호흡의 속도, 차를 우릴 때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마음.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서두르지 않고 과하지 않게 상대와 공간을 먼저 살피는 태도, 잔을 들면 자연히 고르게 되는 숨, 차가 우려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며 정성을 담은 마음. 그 안에는 예(禮)뿐 아니라 청결함과 과학적인 이치,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담겨 있었다.

잔을 들면 자연히 숨이 고르고, 차향을 맡으면 생

각이 한곳에 모였다. 그 순간만큼은 시험도 평가도 사라지고 오롯이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차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나누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이번 대비과정은 그 첫걸음으로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소연 이사장님 외 협회 임원진께서 직접 광주까지 오셔서 자격시험 심사를 맡아주신 일이었다. 그 배려와 책임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을 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어다니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남경 지부장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❸



차로 맺은 인연, 해남에서 다시 시작되다

글_전남지부 지도사범 김수진



茶味如人 心交乃久 同修共苦 情誼益篤
차의 맛이 사람과 같듯, 마음이 통해야 인연이 오래가고 함께 배우며 고생한 시간이 쌓일수록 그 인연은 더욱 깊고 단단해 진다.

땅끝 해남은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한국 차문화 정신이 시작된 자리다. 끝과 시작이 맞닿은 이곳에서 형성된 사유의 정신은 초의선사의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과 함께 해남을 차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초의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남은 지금도 차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초의선사를 떠올리면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의 깊은 교유와 상호 간의 사상적 영향, 그리고 한국 차문화의 비조로서의 위상을 빼놓을 수 없다. 초의는 해남에서 차를 도(道)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다산은 차를 통해 성찰과 사유를 깊게 했으며, 추사는 차로 교유와 예술의 세계를 펼쳤다. 이들의 사유와 실천이 어우러지며 해남의 차문화는 깊고 끈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 위에서 해남은 초의선사가 정립한 다도 정신을 계승하며, 차를 통해 배움과 교류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 길 위에는 한국 차문화의 정립과 보급에 평생을 바친 고 이귀례 이사장이 있었고, 현재는 최소연 이사장이 그 뜻을 이어 (사)한국차문화협회도 함께 하고 있으며, 협회의 활동은 전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며 한국 차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도 서난경 전남지부장의 지도 아래 꾸준히 전문 인력이 배출돼 왔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이번 자격 과정에서도 해남지역 다우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교육을 거쳐 인성 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2명, 2급 지도사범과정 12명이 합격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시험을 앞두고 광주와 해남을 오가며 보낸 약 3개월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 높은 배움의 과정이었다. 동기들은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며 응원했고, 그 시간 속에서 시험 결과 이상의 값진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

자격 취득의 기쁨과 함께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

“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걸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는 큰 선물을 받은 시간이었다.

서난경 전남지부장은 해남 회원들의 여건을 고려해 연습용 다구를 대여하고, 매주 선비차·생활차·규방다례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광주와 해남을 오가며 지도를 이어왔다. 그 헌신에 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또한, 최소연이사장님의 배려로 협회교육장이 아닌 전남지부교육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 감사한 마음 그지 없다. 준비 과정부터 1월 10일 시험, 이후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준 협회 임원님과 사무국 팀장님, 전남지부 선후배들의 도움과 배려에 인성



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을 시험 본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28명은 모두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 모든 깨달음이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인으로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지난 1월 10일 시험을 마치고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해남의 15명 다인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도반으로 맺어졌고, 차문화의 명맥을 이어 차문화 대중화와 선다수행을 목표로 한 창단식으로 그 뜻을 이어갔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이들 가운데 다섯 명은 보다 전문적인 차 교육을 위해 1급 사범과정에도 도전하게 됐다.

앞으로의 길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도반과 함께 걷는 길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땅끝 해남에서 한국 차문화가 더욱 깊고 아름답게 꽃피울 날을 그려보며, 설렘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끝으로 삶의 지표가 되는 서산대사의 시를 덧붙인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걸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❷

추운 겨울을 녹인 배움의 열기

글_인천지부 72기 허재현



지난 2월 7일부터 8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66회 동계연수회에 다녀왔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서운 천안의 칼바람이 연수원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지만, 창외관 대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차인들의 뜨거운 열기는 그 추위를 단번에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내면을 다스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풍성한 시간이었다. 특히 연수 내내 가슴 한구석에 깊이 머물렀던 것은 인천지부 최지원 지부장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지부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건네주신 말씀은 “동기들 간에 서로 좋은 말만 하

고, 해가 될 말은 삼키며 늘 이해와 배려를 잊지 말라”는 진심 어린 당부였다. 그 따뜻한 충고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고, 이번 연수 기간 내내 동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더욱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이번 연수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한국차문화협회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차(茶)문화의 대모이신 선덕다인(善德茶人) 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숭고한 다도 정신은 오늘날 최소연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이정표 아래 더욱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사장님의 세심한 지도 아래 우리 전통문화의 맥이 살아 숨 쉬는 현

“이번 연수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한국차문화협회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차(茶)문화의 대모이신 선덕다인(善德茶人) 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숭고한 다도 정신은 오늘날 최소연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이정표 아래 더욱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장을 지켜보며, 차 한 잔에 담긴 예절의 깊이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가장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단연 ‘인성차문화예절 지도사 수료식’이었다. 다년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침내 졸업장을 손에 쥔 분들의 환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백발이 성성한 연세 많은 할아버지께서 최고령으로 졸업하시는 모습은 장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굵은 허리에도 곧은 정신으로 예법을 갖추며 수료하시는 그 뒷모습에서,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임을 새삼 깨달았다.

이러한 감동의 현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준 분들이 있었다. 교육 중간중간 지친 우리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정갈한 다과를 준비해 주신 분들의 손길과 대강당 한쪽에서 정교한 도자기와 다도 용품을 선보여 주신 분들의 열정은 연수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1박 2일간의 팍 찬 일정은 나 자신을 환기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다. 이번 연수에서 얻은 배움과 최지원 지부장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마주할 일상 속에서도 차의 향기처럼 은은한 배려를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 ☕



협회소식

(사)한국차문화협회는 국내 유일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규방다례를 보존, 보급하는 단체이다
(사)한국차문화협회는 국내 최대 최고의 차문화교육기관으로 지난 1991년 설립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국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신년 교육위원회 개최

차영민 부회장의 한옥 스테이에서 진행

2026년 신년 첫 교육위원회가 1월 19일(월)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차영민 부회장의 한옥 스테이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오전 11시 차영민 부회장이 예약한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한옥 스테이로 이동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위원회는 차영민 부회장이 오랫동안 구상해 완성한 한옥 스테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해당 공간은 전통 한옥의 구조와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숙박 공간으로, 한국적 정취를 살린 실내 구성과 적송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차영민·김가영·강정자·박광옥 부회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유현주 팀장, 민달래 팀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2026년 계간지 『봄』 편집회의와 동계연수회 준비 사항이었다.

차영민 부회장은 “오랫동안 준비한 공간에 임원들을 초대하게 되어 뜻깊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연 이

사장은 “의미 있는 공간에서 회의를 하니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협회의 발전 방향과 올해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문화진흥협회와 우리 협회 회장단 차담회

양 협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 나눴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 등 협회 회장단은 지난 1월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한문화진흥협회 정사무엘의 초청으로 차담회를 했다.

한문화진흥협회 정사무엘 회장은 우리 협회의 활동에 대해 큰 공감을 가졌고, 글로벌 시대에 한국 차문화협회와 한문화협회가 서로 협력하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는 데 공감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한문화진흥협회의 정사무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정사무엘 회장은 “평소에 한국차문화협회 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협회와 한국차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을 해 왔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가 실제로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이 수익 구조를 가져갑니다. 양 협회가 공조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문화진흥협회가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선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세계에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다는 기회가 오늘 모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회장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우리 차문화협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차담회는 두 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협회의 관심사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차 품평회를 통해 차를 알다

세계 각국의 차를 비교 분석하다

지난 2025년 12월 6일 협회 교육장에서 제23기 대학원 차 품평회 수업이 있었다. 차 품평회는 차 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전문 분야로 김영애 순천지부장이 진행했다.

차 품평회는 말 그대로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차의 잎 따기에서부터 브랜딩까지 전 과정을 통해 차를 품평하는 것이다. 이번 차 품평회는 세계적인 차와 우리의 녹차 등 여러 차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차 품평회에 앞서 김영애 순천지부장은 ‘차의 주산지’와 명차, 세계인들이 애호하는 차는 어떤 차들인지 설명하면서, 우리 차와의 비교 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차 설명회가 끝나고 김영애 순천지부장은 국내의 유명 차인 녹차, 발효차, 기문차, 다즐링, 우바 등 구하기 힘든 귀한 차 20여 종의 차를 심사하도록 지도했다. 차 품평회는 시작부터 준비, 심의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한 이번 품평회에서 대학원

생들은 “차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고, 차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랐다.”라고 입을 모았다. 차 품평회 수업 내내 대학원생들은 강사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와 함께 질문으로 알찬 수업을 마무리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2급, 3급 심의

훌륭한 차인들로 성장하는 첫걸음 시작

지난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협회 교육장에서 인성차예절지도사 1급과 2급 심의를 했다. 인성차예절지도사 1급에는 김남순 외 18명이 심의를 봤다.

지난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협회 교육장에서 인성차예절지도사 1급과 2급 심의를 했다. 인성차예절지도사 1급에는 김남순 외 18명이 심의를 봤다.

심의에 앞서 최소연 심의위원장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차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심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거울삼아 차를 가르치는 학생이나 예비 차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박광옥 규방다례 전승교육사는 “며칠 후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여 대학생들에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작은 이벤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하나씩 받고 긴장하지 말고 심의에 임해주세요. 여러분의 앞장에 멋진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규방다례 전승교육사는 “며칠 후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여 대학생들에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작은 이벤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하나씩 받고 긴장하지 말고 심의에 임해주세요. 여러분의 앞장에 멋진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규방다례 심의는 최소연 보유자, 박광옥 전승교육사가 맡았고, 생활다례 심의는 김가영, 강정자, 박경숙 부회장이 심의를 봤다. 심의에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변명선 이사, 인천지부 최지원 지부장과 최성미 전수장학생, 서울제2지부 문차남, 류소영 이사와 그 외 회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해 주었다.



2025년도 12월 정기이사회 개최

2025년도 결과 보고와 2026년도 계획 보고

협회는 지난 2025년도 12월 9일 오전 11시 협회 교육장에서 12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민달래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지부장,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달래 팀장의 성원 보고와 이사장님 인사말이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번 만나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는 꼭 참석해주세요. 그래야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회에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이 협회 발전에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여러 안건 보고와 계획이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제1안 제36회 전국 차인큰잔치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7월 자격검정 결과 보고, 제65회 하계연수회

결과 보고, 제28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결과 보고, 임원, 이수자 교육 결과 보고,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보수교육, 12월 자격검정 계획, 제66회 동계연수회 계획에 대한 안건 상정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기타 안건으로 사범연회비 납부 현황, 2026





년 임원 교토 해외 연수회, 2026년 신년하례식 및 정기이사회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각 안건에 관한 결과 보고와 의견 등이 오고 갔다. 그중에서 인설차문화전 차예절대회 개최 장소와 전국 차인큰잔치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동계연수회 개최 장소 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그동안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연수회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 이어서 교토지부 개설 10주년과 해외 임원 연수회 건에 대한 의견 등을 마지막으로 정기이사회를 마쳤다. 정기이사회를 마친 임원 등은 올해 마지막 송년회 장소인 진평 925로 장소를 변경하여 올 한해 있었던 일과 앞으로 협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심의

지난 2026년 1월 10일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가 있었다. 오후 1시부터 3급 필기 심의를 보았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3급 <생활다례> 실기 심의가 있었다.

3급 실기 심의는 박경숙 부회장, 연구남 이사, 서명주 이사가 심의를 보았다. 총 28명이 심의를 본 전남지부 교육장은 서난경 전남지부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전남지부 사범들의 능숙한 지원과 협조로 3급 심의 내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준비를 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3급 심의는 지방에 있는 회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직접 지부에 내려와 심의를 보게 되었다. 협회에서도 최소연 이사장 등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주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3급 심의를 보는 회원들에게 최소연 이사장은 “2급에 지원하고,

대학원에도 등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남지부, 광주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전북지부 등 호남과 영남지역의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심의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박경숙 부회장은 “전남지부에 이렇게 많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부럽습니다. 열심히 하여 2급과 1급에도 지원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3급 심의를 본 전남지부는 서난경지부장의 지도로 협회의 모범지부로 거듭나고 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필기, 실기 심의

전남 차생원 2층 교육장에서 실시

지난 2026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00 차생원 2층 교육장에서 협회 인성차문화예절 지도사 2급 필기 및 실기 심의가 있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2급 필기시험이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실기 심의를 보았다.

실기 자격심의위원은 최소연 이사장, 김관인 고문, 이해자 수석부회장, 박광옥 부회장이 맡았다. 모처럼 김관인 고문과 이해자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관인 고문은 “협회 임원들과 모처럼 조우하게 되어 정말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멀리 있어도 항상 협회 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모처럼 내려왔으니 협회의 발전 방향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좋습니다”라며 말했다. 최

소연 이사장도 “고문님이 건강해 보여 너무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내려오도록 할 테니, 고문님과 이해자 수석부회장님도 협회 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점심 식사 후 본격적인 실기 심의를 시작했다. 1조에 5명씩 총 5조까지 진행된 이번 심의에서 회원들은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하지만 자격심의위원들의 눈에는 아직도 미흡한 구석이 많이 보여, 틈틈이 잘못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심의위원들은 “열심히 한 것이 표시가 납니다. 더욱

열심히 연습하여 훌륭한 차인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난경 전남지부장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전일부터 청소는 물론 외부에서 오는 회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어 ‘배려’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경 남 지 부

변화와 성장의 시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수료 축하



지부장 황미경

고은희 사범 차문화대학원 과정 1년 동안 먼 길 다니고 자격 검정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저와 경남지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낯설고 두렵지만 그 낯설이 바로 성장의 증거이고, 그 두려움이 바로 변화를 향한 문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과정을 잘 마무리하여 진정한 차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글 전문사범 임현섭



72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과정 입문

생각만 해오던 차문화 공부를 시작하다

지난해 9월 72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차공부를 시작하여 12월 초 종강하고 방학 특강으로 가루차 실습하였다.

가을학기 동안 인성교육진흥법을 살펴보고 인성예절 가루차와 규방다례를 배우고 6대 다류의 분류와 음용법을 실습하였다. 차문화사 부분은 차인

열전을 인천도호부에서 열린 인설차문화전에서는 녹차(가루차), 황차 찻자리를 펼쳤다. 전통예절 중 관례와 혼례를 집단상담과 차의 고전 중 이목의 다부를 동영상으로 배웠다. 지나고 보니 다양한 내용과 실습, 행사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며 더 험난한 길은 가슴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로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제가 차문화에 입문하여 경남지부에서 오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지부에서의 차공부는 매번

새롭고 기다려진다. 또 다음 학기도 기대된다.

글_72기 사범반 김지원



여성들이 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교육을 받아보니 남성들에게도 참 유익하다고 하시며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 대상 다례교육에서도



차맛이 좋다며 질문도 많이 하시고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저와 주영희, 이용숙, 고은희 사범님 함께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글_전문사범 정재윤

마산향교 유림충효 교실

유림(儒林)에서 '전통 다례와 차문화'를 배우다

11월에 마산향교 유림충효 교실 '전통다례와 차문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황미경 지부장님 교육으로 첫 주는 전교님 외 임원 교육을, 둘째 주는 일반인 대상 다례 교육을 하였습니다.

마산향교는 1414년(태종 14년) 진해 현이 설치되면서 진해향교로 창건되어 창원 마산향교로 복원되었고 건물도 재건되었습니다.

입구의 외삼문은 맞배지붕을 올린 솜을 삼문이며 학문을 강의하는 명륜당은 정면 5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대성전에 공자를 포함한 5성과 중국

과 우리나라 20현을 향사하고 있습니다.

마산향교 임원님들 교육에 다들 다례와 차문화는



신어중 신어 축제 찻자리

경남지부 김해지회 회원들 봉사

지난 12월 22일에 김해 칠암도서관 공연장에서 '신어중 신어 축제' 축하 찻자리를 하였다. 톨스토이는 "세 개의 의문"이란 글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善)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찻자리에 학생들에게 좋은 찻자리가 되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글_전문사범 주영희



교 토 지 부

재외교포에게 한국의 차문화 강의

교토지부 회원 및 학생들 만족감 표시



지부장 조화미

2025년 11월 15일 일본 교토 인터내셔널스쿨 교토코쿠사이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30명한테 한국의 차문화 수업을 했다. 이것으로 이 학원 학생 약 160명에게 한국의 차문화를 가르쳤다.

이 학교 선생님들은 재외교포(재일동포)로 사는 세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주겠다는 열의로 교토지부에 교육을 의뢰했다.

한국의 차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과 반응을 보면서 보람찬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우리 교토지부 지도자들도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교토지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4월 5일 오후 2시부터 한국 명차 시연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시연 행



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차문화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아래 사진은 교토지부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이다.

韓國茶文化協會 京都支部 設立10周年記念行事
韓國 仁川廣域市 無形文化遺産 第11号
閨房茶禮 公演
— 日韓茶文化交流の歩みと共に —

韓國茶文化協會 京都支部は、日韓の茶文化交流を目的として設立され、本年、設立10周年という節目を迎えることとなりました。

これまで支えてくださった多くの皆様への感謝の気持ちを込め、設立10周年記念行事として、韓国(仁川廣域市無形文化遺産 第11号「閨房茶禮(きゆうちやれい)」)の公演を開催いたします。

閨房茶禮は、朝鮮時代に女性たちの生活空間で受け継がれてきた、静かで気品に満ちた伝統的茶礼です。茶を点て、客をもてなす一つひとつの所作には、敬いの心と、静かに眠らした美意識が込められています。本公演を通して、韓国伝統茶文化の奥深さとともに、日韓茶文化交流のこれまでの歩みを、心静かなひとときとしてご体験いただけたら幸いです。皆様のご来場を心よりお待ちしております。

日時 2026年 4月5日(日)
14:00~ 韓国茶各種試飲
14:30~ 開会・ご挨拶
15:15~ 閨房茶禮保存会による「閨房茶禮」公演

会費 5,000円
主催 韓國茶文化協會 京都支部
場所 京都みやこめっせ 地下1階 大会議室
京都市左京区岡崎成徳寺町9番地の1
【最寄り駅】京都市地下鉄東山線
【東山駅】より徒歩約8分

連絡先 支部長 趙和興 TEL.090-7495-9626
Eメール hwami521@yahoo.co.jp

대구 경북 제1지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성차문화예절교육 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유아원생 교육



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인성차문화예절 교육을 진행했다.

아직은 찻잔 드는 것도 어려워하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사범들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듣고 따라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러웠다.

설날 세배하기, 차 마시기와 다식 먹기 등등을 가르치다 보니 유치원 선생님들도 따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을 마친 다음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행동이 교육 전과 후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좋은 교육을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해 본다.



차인 단체 신년교례회 찾자리

대구 경북 차인들 한마음으로 새해 인사

지난 2월 4일 대구에서 차인 단체 신년교례회가 있었다. 우리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들은 찾자리 세 자리를 준비했다.

모든 차인 단체는 찾자리를 3자리씩 준비하기로 했다. 식전 일찍부터 찾자리를 위해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회원들은 손님들을 위하여 다화, 다식, 찻그릇들이 돋보이도록 찾자리를 뽑냈다.

대구 경북에 많은 차인들이 참석해 함께 했다. 선·후배들 표정이 아름답다. 취미가 같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담은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인 것 같다. 스크린에 우리 한국차문화협회가 비춰질 때는 큰 박수 소리와 환호성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디를 가나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지부장 어깨가 저절로 올라간다.

찾자리 준비해 주신 박양자 선생님, 최수연 선생님

이국주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함께 했던 차인들 모두가 건강하기 기대한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차인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한다.



서울 제1지부

홍차티마스터 초급·중급반 개설

타 지부 및 일반인도 수강 가능



지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에서는 오는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홍차티마스터 기초(초급·중급)과정을 개설한다. 강사로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석예 이사가 진행한다.

홍차의 유래부터 티 파티까지 다양한 주제로 홍차를 마스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장소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사)한국차문화협회 3층 교육장에 열린다. 서울제1지부 이외에 타 지부의 회원과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강의 내용은 우측표와 같다.

홍차티마스터 기초(초·중급) 과정

♣ 교육기간 : 3월 8일(일) ~ 4월 5일, 매주 09:00 ~ 14:00

♣ 모집인원 : 10명 내외(선착순 마감, 일반인도 가능)

♣ 접수마감 : 2026년 3월 5일(목, 18시)

♣ 교 육 비 : 30만원(일반인 40만원) ※ 재료비 포함

♣ 교육장소 : 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

♣ 강 사 : 이 석 예

♣ 초급 교육 프로그램

회차	날 짜	교 육 내 용	소요시간 (총10시간)
1회	3월 8일	홍차의 유래	2시간
2회	3월 15일	홍차를 즐기는 기본상식(Golden Rules)	2시간
3회	3월 22일	세계의 3대 홍차(기문, 다르질링, 우바)	2시간
4회	3월 29일	다양한 홍차 즐기기(밀크티, 과일티, 아이스티)	2시간
5회	4월 5일	티 파티 연출	2시간

♣ 중급 교육 프로그램

회차	날 짜	교 육 내 용	소요시간 (총15시간)
1회	3월 8일	한국, 중국, 영국의 홍차 이론과 실제	3시간
2회	3월 15일	인도의 홍차 이론과 실제	3시간
3회	3월 22일	스리랑카의 홍차 이론과 실제	3시간
		러시아 / 미국의 홍차 이론과 실제	
4회	3월 29일	티 블렌딩	3시간
5회	4월 5일	티 파티	3시간

아 산 지 부

온양향교 동계 충효예절 교육 시행

7일간 김태임 지부장 봉사로 이뤄져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 2025년 온양향교 동계 충효예절 교실이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온양 유림관에서 열렸다.

매년 열리는 충효예절 교육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보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7일간 진행된 충효예절 교육은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의 지도로 진행되었으며, 차문화 예절로는 우리의 다례와 생활예절 수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는 차의 이론과 차 우리기 등 현대 예절과 전통 예절 등에 대해 중점적으

로 교육했다. 특히 인사 예절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는 차 우리기와 차의 효능 등 일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어 호기심을 자극했다.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와 전통 예절,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부장 김태임



온양문화원 문화발표회 날 찾자리 마련

시민들에게 우리의 차문화 보급

지난 12월 5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2025 온양문화원 문화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문화발표회는 24개 강좌 프로그램 발표회 날로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아산지부는 지난 1년 동안 '다도'라는 프로그램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 차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아산지부는 1년 동안 함께 공부한 도반들과 함께 찾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비록 동적인 프로그램들보다는 관심이 덜했지만,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한다는 마



음으로 예비차인들한테 차를 선보였다.

홍차 수업과 다담 시간 가져

지역의 문인들과 차와 문학을 이야기 하다

아산지부에서는 지역 문인들과 함께 홍차 수업을 겸한 다담 시간을 가졌다. 문인들은 시와 수필, 시낭송 등을 하는 지역의 문인들로 김태임 지부장의 초빙으로 홍차 수업을 하게 되었다. 홍차 수업에서

김태임 지부장은 홍차의 유래, 세계 각국의 차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스리랑카의 우바, 인도 다르질링, 중국의 기문 홍차에 관해 설명하였고, 각 홍차의 특징에 홍



차 맛을 보면서 소개했다. 문인들은 차의 유래를 들으면서 차와 문학이 참으로 어울린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인들과 다담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이



생각되었다. 특히 시낭송과 차의 접목으로 더 많은 일반인이 함께했으면 했고, 그것을 통해 차문화가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년 인사회에 찾자리 봉사

지역주민 300여 명에게 우리의 차문화 알리다

지역 기관장의 신년 인사회에 아산지부가 찾자리 지원으로 자리를 빛냈다. 희망찬 병오년 신년 인사회는 김태임 지부장을 비롯하여 아산지부 사범과 문화원 다도반 수강생 10여 명이 찾자리를 준비하여 아산시 시장과 각 기관의 단체장으로부터 우리의 차문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지역의 기관장을 비롯하여 아산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태임 지부장



등 사범과 다도반 수강생들은 아침 일찍 찾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정성껏 마련한 찾자리에 많은 시민이 우리 차를 마시는 모습이 흐뭇했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차문화를 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산지역에 우리의 차가 더 많이 보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년 아산지부 종강식을 가지다

2026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자

아산지부는 2025년 2학기 마지막 종강식을 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종강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행사와 수업을 병행했던 이야기를 꽃피우며 다담 시간을 가졌다. 종강식에는 김태임 지부장이 아껴두었던 백연차가 나왔다. 따뜻하게 우린 차는 맛과 향이 일품이었다.

연향이 감도는 다담 시간 회원들의 얼굴이 활짝 편 연꽃처럼 맑고 밝았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고 아쉬웠던 점과 새롭게 고쳐야 할 점 등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서로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학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모두가 기원했다.



인천지부

2026년 인천지부 동계연수회 찾자리

전국의 회원들로부터 칭찬 릴레이

인천지부가 최우수지부로 선정되어 2026년 연수회 찾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찾자리에는 다식이 빠질 수 없기에 인천지부 사범님들과 지부장님댁에 모여 다식을 만들었다. 우선 대추씨를 빼고 마카다미아를 넣은 다식, 흑임자가루를 동그랗게 만들어 잣을 박고 두부과자에 올린 다식, 잣을 볶아 동그랗게 빚어 잣박산을 만들었다. 꽃감호두말이, 다식판으로 찍은 녹차색과 치자색 다식, 단호박양갱과 팔양갱까지 하루종일 만든 다식들을 보니 참 뿌듯했다.

함께 모여 만들지 못한 사범님들은 개인적으로 만드신 금귤정과와 꽃감단자, 굴양갱까지 솜씨를 발휘해 주셔서 다양한 다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

글.전문사범 이윤희



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 최우수지부로 거듭나다

모든 회원들이 만들어 낸 결과

2026년 초 동계연수회에서 인천지부가 최우수 지부의 깃발을 받았다. 그동안 최지원 지부장님과 함께 모든 회원이 합심하여 힘써온 결실을 거둘 수 있어 모두가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42명의 회원이 동계연수회에 참석하였다. 심기일전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깃발을 받으니 깃발의 무게만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인천지부의 2025년은 개강식부터 성황을 이루었다. 기존의 회원들은 새로운 교육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여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5월의 제다실습에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죄송하게도 접수를 일찍 마감하는 일도 있었다. 차 인큰잔치를 비롯해 인천의 여러 찾자리 봉사에도 공지가 올라오면 선뜻 시간을 내어 손을 보태 주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실감이 났다.



7월부터는 둘째 주 목요일마다 지부장님이 지부를 개방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잠깐이라도 와서 차를 맛볼 수 있게 차방을 열어 여러 가지 차를 우려주셨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여러 차의 색과 맛, 향을 경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발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11월의 차예절 경연대회도 참가자가 많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반짝이는 차문화의 다음 세대를 보는 것으로 9월부터의 수고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런 시간이 쌓여 최우수지부라는 결실을 보니 '힘들다. 어렵다는 말은 접어두고 싶다'라는 지부장님의 애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다. 2026년 모든 회원이 함께 더욱 즐겁고 알차게 차생활을 즐기는 인천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글.이사 원종혜



전 남 지 부

재능기부 나눔으로 화기애애한 종강식

예절과 배려, 공동체, 절제의 의미를 새기다

2025년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종강식이 지난 12월 6일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난경 전남지부장을 비롯해 회원 20여 명이 참석, 한 해 배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난경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언가를 하게 하는 방법에는 명령과 부탁이 있으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부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려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가 느끼는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종강식은 한국 차문화의 핵심 가치인 예절과

배려, 공동체, 절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행사 중에는 송필용 회원이 직접 제작한 차척을 전남지부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경자 이사는 “차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인 만큼, 서로 배려하며 함께 배우는 다우가 되자”라고 말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종강식은 차문화를 통한 배움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글_2급 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지부장 서난경



다우라는 인연으로 한마음 한뜻

전남지부 인성차문화예절 2·3급 자격증 시험 치뤄

인성차문화예절 2급 및 3급 자격증 시험이 전남·강진·광주·전북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50명이 응시했다.

그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은 서울에서 진행됐으나, 이번 시험은 전남지부 응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최소연 이사장님의 배려와 서난경 전남지부장의 요청으로 광주에서 실시됐다. 해남 지역 응시생의 경우 서울까지 이동하려면 1박 2일 일정이 필요해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급 자격증 시험은 한국제다 차생원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22명이 응시했다. 심사는 최소연 이사장, 김관인 고문, 이해자 수석부회장, 박광옥 부회장이 맡았다. 3급 자격증 시험은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실시됐으며 28명이 응시했고,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연규남 이사, 서명주 이사가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험은 여러 지도사범과 교육생들의 협조 속에 원활하게 운영됐으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여름 3급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이미라 지도사범 교육생은 “당시 서울까지 올라가 긴장 속에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떠올랐다”라며 “차를 통해 맺어진 인연인 만큼 서로 격려하며 함께 배워가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난경 전남지부 지부장은 “연세가 있어 다리가 불편한데도 익혔던 자세와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에서 원숙한 우아함을 보며, 20대 초반의 애 띤 교육생이 마치 양갓집 규수가 어른들 앞에서 차를 올리듯 단정하게 다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배움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규방다례가 K-컬처의 한 축으로 세계로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주제로 찾자리를 펼쳐

목포 제일로유치원 졸업식

전남지부는 지난 2월 6일 목포 제일로유치원(원장: 서정인 1급 전문사범) 졸업식에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주제로 찾자리를 펼쳐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학생 250여 명의 참석했는데 아름다운 찾자리 세팅에는 호강, 입 호강으로 매 순간 행복했다.

이날 찾자리는 김정자 이사가 펼친 기러기의 품속에서 세월을 담아내는 보이차, 박숙희 전문사범이 준비한 흑독한 추위를 따스함으로 바꾸고 마음의 여백을 채우게 하는 단아한 녹차 찾자리, 유성란 지도사범의 검은 다완에 담긴 초록빛 바다 같은 가루차, 박화영 지도사범 교육생이 펼친 투명한 유리 다관 속에 피어나는 봄의 향연과 같은 꽃차 찾자리는 졸업식에 참여한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박선희 전문사범 주도하에 매끄럽게 진행된 개인 찾자리는 이날 찾자리의 일등 공신이었다. 이날 찾자리에 참여한 고영숙 지도사범 교육

생은 “차문화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줄 몰랐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선배님들께서 말없이 행하는 봉사에는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배우고 익혀 봉사를 실천하는 차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정인 제일로유치원장은 “이런 자리를 통해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며,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람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전남지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내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오는 2월 24일, 25일 치러질 입학식에도 새 출발을 응원하는 행복한 찾자리를 펼칠 예정이다.

글: 지부장 서난경



충북지부

제66회 동계연수회에서 수상

자랑스러운 우리 지부 일꾼들

2026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제66회 동계연수회에서 우리 지부 김은희 사범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충북지부 1기 사범으로 지난 25년간 지부의 회노애락을 함께하며 꾸준히 지부의 일을 해왔기에 모든 회원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수상이다.

조윤정 사범은 자신의 직업으로 지부의 행사 등에 참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지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봉사의 마음을 기려 모든 회원들의 찬사 속에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민애 신임 전문사범은 주말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1년 동안 차문화대학원 공부를 성실히 이행하여 1급 차문화예절지도사

전문사범이 되었기에 모든 회원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부의 수상자들을 거울삼아 우리 지부가 더욱 단합하여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부장 박숙희



충북지부 2학기 사범회 송년회

2025년 마무리 시간을 가지다

우리 지부 사범회는 12월 15일 송년회를 가졌다. 2025년 2학기를 마무리하며 저녁밥을 나누었다. 아쉬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더 큰 보람을 다짐하며 기대에 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원들 2026년 신년회

2026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

우리 지부 임원들은 1월 9일 2026년 신년회를 가졌다. 새해를 맞는 기쁨으로 우리 충북지부 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설계를 시작했다. 이병숙 전문사범이 준비한 맛있는 떡, 딸기와 전근화 전문사범의 사찰음식들로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여 시작부터 훈훈한 시간이었다. 2026년은 더 크게 도약하는 우리 지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따뜻한 흥차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2·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19명)



1급-제26-469호
고○희



1급-제26-470호
권○희



1급-제26-471호
이○주



1급-제26-472호
이○우



1급-제26-473호
천○경



1급-제26-474호
이○진



1급-제26-475호
장○애



1급-제26-476호
조○수.jpg



1급-제26-477호
홍○선



1급-제26-478호
김○순



1급-제26-479호
유○경



1급-제26-480호
이○아



1급-제26-481호
이○숙



1급-제26-482호
노 ○



1급-제26-483호
명 ○



1급-제26-484호
박○숙



1급-제26-485호
윤○진



1급-제26-486호
이○희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31명)



1급-제26-487호
이○애



2급-제26-1160호
강○현



2급-제26-1161호
조○경



2급-제26-1162호
김○빈



2급-제26-1163호
여○경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31명)



2급-제26-1164호 유○숙 2급-제26-1165호 박○화 2급-제26-1166호 김○숙 2급-제26-1167호 민○식 2급-제26-1168호 엄○화 2급-제26-1169호 강○순



2급-제26-1170호 김○진 2급-제26-1171호 김○길 2급-제26-1172호 윤○웅 2급-제26-1173호 임○우 2급-제26-1174호 최○금 2급-제26-1175호 한○주



2급-제26-1176호 김○하 2급-제26-1177호 신○선 2급-제26-1178호 이○영 2급-제26-1179호 이○연 2급-제26-1180호 정○경 2급-제26-1181호 이○성



2급-제26-1182호 이○옥 2급-제26-1183호 최○선 2급-제26-1184호 강○내 2급-제26-1185호 김○자 2급-제26-1186호 명○자 2급-제26-1187호 송○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2급-제26-1188호 장○화 2급-제26-1189호 전○란 2급-제26-1190호 정○숙 3급-제26-1089호 정○후 3급-제26-1090호 구○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44명)



3급-제26-1091호 김○순 3급-제26-1092호 전○숙 3급-제26-1093호 박○숙 3급-제26-1094호 김○연 3급-제26-1095호 김○지 3급-제26-1096호 남○옥



3급-제26-1097호 유○선 3급-제26-1098호 이○숙 3급-제26-1099호 임○태 3급-제26-1100호 조○선 3급-제26-1101호 김○희 3급-제26-1102호 노○균



3급-제26-1103호 박○옥 3급-제26-1104호 박○순 3급-제26-1105호 변○희 3급-제26-1106호 손○숙 3급-제26-1107호 조○선 3급-제26-1108호 고○숙

					
3급-제26-1109호 김○	3급-제26-1110호 김○순	3급-제26-1111호 박○숙	3급-제26-1112호 박○영	3급-제26-1113호 배○식	3급-제26-1114호 손○자
					
3급-제26-1115호 안○영	3급-제26-1116호 위○숙	3급-제26-1117호 윤○숙	3급-제26-1118호 이○민	3급-제26-1119호 정○선	3급-제26-1120호 홍○희
					
3급-제26-1121호 김○영	3급-제26-1122호 박○아	3급-제26-1123호 박○숙	3급-제26-1124호 여○현	3급-제26-1125호 유○희	3급-제26-1126호 윤○영
					
3급-제26-1127호 이○숙	3급-제26-1128호 이○영	3급-제26-1129호 이○희	3급-제26-1130호 임○숙	3급-제26-1131호 장○숙	3급-제26-1132호 홍○숙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thinkmy@naver.com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8월~ 2025년 11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39,600,000원)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차영민(1,500,000원)	이사 · 신은주(1,000,000원)	이사 · 이금숙(1,000,000원)
부회장 · 박경숙(1,500,000원)	이사 · 김영희(1,000,000원)	이사 · 최점순(1,000,000원)
이사 · 문차남(1,000,000원)	이사 · 연규남(1,000,000원)	지부장 · 조화미(500,000원)
이사 · 정순영(1,000,000원)	이사 · 박삼숙(1,000,000원)	지부장 · 최진숙(500,000원)
이사 · 송향숙(1,000,000원)	이사 · 이막동(1,000,000원)	
이사 · 원종혜(1,000,000원)	이사 · 심순옥(1,0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경남지부 · 고은희	광주지부 · 이경성, 이진옥, 최승선
교토지부 · 조화미 외 12명	
대구경북제1지부 · 권영희, 이국주, 이진우, 천미경, 강숙현, 조은경	
서울제1지부 · 이순진, 장미애, 조운수, 홍길선, 김승빈	
수원지부 · 여미경, 유화숙	아산지부 · 박은화
인천지부 · 김남순, 유연경, 이진아, 이혜숙, 김혜숙, 민려식, 엄선화	
전남지부 · 강귀순, 김순진, 김홍길, 윤선웅, 임성우, 최영금, 한정주, 강시내, 김근자, 명영자, 송용필, 장근화, 전미란, 정귀숙	
전북지부 · 노을, 명철, 박은숙, 윤성진, 이주희, 김춘하, 신효선, 이미영, 이재연, 정가경	
충북지부 · 진순자, 이민애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5년 12월~ 2026년 2월 우송로 납부자 명단

12월 통장 입금

강원 · 박복순, 손이옥, 정춘후, 정유리, 정유진, 오주원, 강춘미 / 인천 · 음민희 / 충북 · 박창희

2026년 1월 통장 입금

충북 · 진순자 / 서울제2 · 정순영 / 인천 · 신은주, 원종혜

2026년 2월 통장 입금

경남 · 고은희 / 광주 · 이경성, 이진옥, 최승선 / 교토 · 조화미 외 12명 / 대구경북제1 · 권영희,
이진우, 이국주, 천미경, 강숙현, 조은경 / 서울제1 · 홍길선, 조운수, 이순진, 장미애, 김승빈, 최
진숙, 최점순 / 서울제2 · 장호순 / 수원 · 유화숙, 여미경 / 아산 · 박은화 / 인천 · 이진아, 김남순,
이혜숙, 유연경, 엄선화, 김혜숙, 민려식 / 전남 · 김수진, 강시내, 전미란, 장근화, 최영금, 정귀
숙, 김근자, 명영자, 한정주, 김홍길, 윤선웅, 임성우, 강귀순, 송용필 / 전북 · 명철, 이주희, 윤성
진, 노을, 박은숙, 이재연, 정가경, 신효선, 김춘하, 이미영 / 충북 · 이민애 / 기타 · 연정순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다매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